“무기 대신 자비로” 유엔공원에 핀 평화 발원

자비세상 · 자비명상 총동창회
9월 1일, 평화공원서 걷기 명상
세계 향해 “전쟁 중단” 촉구
마가 스님 “하화중생 실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사단법인 자비세상과 자비명상 총동창회 소속 스님들이 9월 1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공원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자비세상(이사장 마가 스님)이 부산 유엔평화공원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사)자비세상과 자비명상 총동창회는 9월 1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공원 일원에서 세계평화 기원 호소문 낭독 및 걷기 명상 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공원 입구에서 평화의 탑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해 삼귀의, 호소문 낭독, 영문 평화 선언문 낭독, 반야심경 봉독, 평화 기원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석 스님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정근하며 걷기 명상을 통해 자비의 마음을 온 세상에 회향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스님들은 “Stop the War, Start the Peace(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시작하라)”라는 호소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전쟁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참석한 스님들은 혜광 스님(서울 참나선원)의 호소문 낭독에 함께 합장하며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에는 정치나 이념이 아닌 학교에 가야 할 아이와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무력 대신 대화를 선택하고 증오 대신 자비를 베풀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

자비명상 총동창회장 혜정 스님은 “대중들이 세상을 향해 평화를 외치는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비명상 총동창회는 평화 기원 행보를 이어간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함락 후 왜장을 껴안고 바다에 투신한 두 기녀의 넋을 기리는 남구 이기대를 방문해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또 참석 스님들이 각자의 수행 여정과 향후 회향 방안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연다.

자비세상은 앞으로 전국 사찰에 상담 및 명상을 위한 마음 보건소와 마음 약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명상과 심리 상담을 결합해 현대인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나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마가 스님은 “자비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듭 돌아보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실천적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 예술 꿈나무들에 ‘감동 무대’ 선사

제4회 문화예술 아카데미 발표회
8월 30일, 삼광사 특설무대서



8월 30일 삼광사에서 열린 ‘제4회 어린이 · 청소년 문화예술 아카데미 발표회 및 초청공연’에서 참가 학생들과 삼광사 스님들,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광사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응원하고 화합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화한마당을 펼쳤다.

삼광사는 8월 30일 대중공양실 특설무대에서 ‘제4회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아카데미 발표회 및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2일 개강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활동을 회향하며 참가자들이 그동안 익힌 기량을 가족과 이웃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카데미에는 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칼림바, 붐웨커,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익혔다. 특히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과정을 겪으며 예술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이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회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칼림바 연주로 막을 올렸다. 학생들은 영화 ‘와일드 씽’의 ‘니가 좋아’와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을 맑은 음색으로 연주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붐웨커 팀이 다채로운 색상의 붐웨커로 ‘도레미송’과 로제의 ‘아파트’를 선보이며 객석에 경쾌한 에너지를 선사했다.

역동적인 동작이 돋보인 초등학생들의 음악줄넘기와 유아부의 방송댄스는 현장의 열기를 이끌었다. 그룹 QWER의 ‘내 이름 맑음’에 맞춰 발랄한 율동을 뽐낸 유아들에게는 관객들의 미소와 아낌없는 환호가 쏟아졌다.

발표회의 피날레는 17명의 단원이 입을 맞춘 합창 무대가 장식했다. ‘찬미의 나라’와 ‘부처님 되자’를 부르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맑은 하모니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무대 외에도 댄스, 음악줄넘기, 마술,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초청공연이 더해져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앞서 삼광사는 예술교육 외에도 템플스테이, 다도, 푸드아트, 도자기 만들기, 물놀이 등을 결합한 여름캠프를 병행해 아이들이 친밀감을 쌓고 불교문화와 친숙하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삼광사 교무국장 덕중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어린이들이 꿈과 끼를 펼치고,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백중 맞아 어르신에 ‘자비나눔’ 공양

8월 28일, 로터스봉사단 전달식
9월 11일 2차 자비나눔 이어져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불기 2570년 백중 회향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사단법인 쿠무다 부설 로터스봉사단은 8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중 회향 자비나눔 1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쿠무다 이사 지안 스님(울산 연지암 주지)과 성보영 로터스봉사단 단장, 임경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해 로터스봉사단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로터스봉사단의 정기 후원 활동의 일환이다. 봉사단은 매월 한 차례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108세대에 직접 조리한 반찬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백중 기도의 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평소보다 풍성한 보양 음식으로 구성했다.

전달된 물품은 전날 이사장 주석 스님과 봉사단원들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과 김치 등 밑반찬 3종과 즉석 삼계탕 등 간편 보양식을 비롯해 김, 두유, 과일 등 부식류 등이다. 음식은 송정동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지안 스님은 “봉사단원들이 백중 회향의 뜻을 담아 어르신들께 정성을 모았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다가오는 가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쿠무다는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해운대구청에서 2차 자비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즉석 보양식 1080개를 추가로 보시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려동식물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울산 덕원사, 8월 30일 천도재
덕원 스님 “자비로 편히 쉬길”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하다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이들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8월 30일 대웅전에서 ‘반려동식물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반려동식물의 위패를 모시고 영가를 청한 뒤 관욕과 공양 등 불교 전통 천도의식으로 진행됐다.

덕원 스님은 “천도재는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아픔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태어나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반려동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며, 생명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발원문에서 “이제 모든 아픔과 미련을 내려놓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감사를 가슴에 품은 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히 쉬어가기를 바란다”며 영가들의 왕생과 보호자들의 마음 치유를 함께 기원했다. 천도재에 동참한 보호자들도 떠나보낸 반려동식물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다.

울산 북구에서 온 한 동참자는 “천도재를 지내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며 “이제는 아프지 않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포항에서 반려묘 ‘찡이’를 천도하기 위해 찾은 보호자는 “천도의식으로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말했다. 052-246-8688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를 그리다…제5회 전국사생대회

10월 10일, 서축암 옆 운동장서
초·중·고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사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자리를 마련한다.

통도사는 10월 10일 서축암 옆 운동장 일대에서 ‘제5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한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생대회는 미래 세대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제한이나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참가 부문은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뉜다. 초등부 저학년은 8절지, 고학년은 5절지에 수채화나 크레파스화를, 중등부와 고등부는 4절지에 수채화, 아크릴화, 파스텔화 중 선택해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대회 주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까지 통도사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팩스, 전화 및 문자(평일 오후 1시~5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10월 14일 통도사 및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정법사, 대보부모은중탑비 제막

8월 27일, 백중 회향법회
쌀 4000kg 등 자비나눔도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백중을 맞아 조성 108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대보부모은중탑(大報父母恩重塔)의 정비불사를 회향하고 탑비를 제막하며 효행 정신을 되새겼다.

정법사는 8월 27일 만불보전과 대보부모은중탑 일원에서 병오년 백중 7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정법사 초대 포교사 경봉 스님의 원력으로 1918년 조성된 대보부모은중탑은 경남도 유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정법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훼손된 탑의 원형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옛 사진과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정비불사를 진행해 왔다. 정법사는 이날 법회를 기념해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독송·사경본도 법공양했다.

백중기도의 공덕을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자비나눔도 진행됐다. 정법사는 신도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공양미 4000kg을 마산합포구청(1000kg), 초록우산(1000kg), 창원 사회복지협의회(1000kg), 창원 불자 봉사단(500kg), 온사랑(500kg) 등에 전달했다. 또 대자유치원 자모회가 부처님 오신날 일일찻집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과 광우 스님의 저서 인세 등을 더한 500만원을 사단법인 리본 유기견 협회에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황련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넋 위로

8월 30일 생명평화 문화제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해원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문화제전이 부산 황련사에서 펼쳐졌다.

부산 황련사(주지 정산 스님)와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제전추진본부는 8월 30일 황련사 일원에서 ‘2026 아시아 생명평화 문화의 제전-일본군 위안부 천도재 및 해원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와 여성독립군은 불꽃-별빛-연꽃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지모신(地母神)이여라’를 주제로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산 스님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발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참선이나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자동적인 반응도 멈출 수 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배움·수행·화합으로 미래 발전 모색”

대승불교삼보조계종 연수대회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창녕 로얄호텔 연수장에서 ‘2026 종단 종도합동 연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종회의장 지홍 스님, 교육원장 덕일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임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원장 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끝이 아니라 수행과 성장의 시작”이라며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도들의 수행과 교육, 화합과 실천이 종단을 발전시키고 불교의 자비와 평화정신을 사회에 널리 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회의장 지홍 스님은 특강을 통해 신도와 출가자 감소 등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종도 교육과 포교, 사찰운영의 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